01 교회소식
생명의 현장을 찾아
인도네시아 목회자들이 우리 교회를 방문해 세미나 및 주일예배, 다니엘철야 기도회에 참석하여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였다.

02 생명의 말씀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 시리즈
육을 벗고 항상 성령의 소욕을 좇으며, 범사에 기쁨과 감사의 마음으로 기쁨의 씨를 심어나갈 때 희락의 열매를 맺을 수 있다.

03 기획특집
땅끝까지 이르러 주님의 증인이 되다(1)
하나님께서는 스텔스기처럼 강력한 하나님의 권능으로 전 세계에서 연합대성회를 개최하여 땅끝 이스라엘에 복음이 회귀되게 하셨다.

04 간증
"살아 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손수건 기도를 받고 잃었던 왼쪽 귀의 청력을 되찾은 고재현 집사와 굳어진 온몸이 정상으로 회복된 필리핀 윌리 미라베노 집사 간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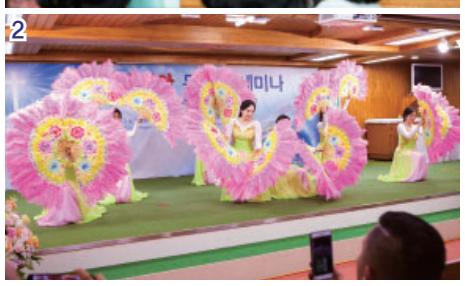
만민뉴스

제888호 2019년 5월 12일(주간)
MANMIN NEWS
교회 대표전화 02-818-7000
www.manmin.org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만민의 사역, 놀랍습니다!"

인도네시아 목회자 120여 명 우리 교회 방문

1


2

3

4

5

6

7

8

9

10

지난 5월 4일부터 5일까지 인도네시아 목회자 120여 명이 우리 교회를 방문하여 만민의 사역을 직접 보고 체험하며 살아 계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렸다.

첫 일정으로 5월 4일(토) 오후 9시 20분, 3성전에서 시작된 목회자 세미나는 예능위원회 소속 크리스탈싱어즈와 예술선교단, 파워워십팀의 인니어 찬양, 한국 무용, 워십댄스 등으로 참석자들에게 큰 은혜와 감동을 선사했다(사진 2, 6). 이어 당회장 이재록 목사를 통한 권능의 사역과 방송 및 문서 선교 등이 담긴 영상을 시청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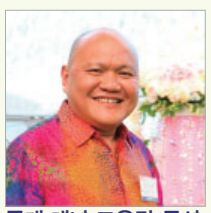
그 후 강사 이수진 목사는 "우리 교회 부흥의 비결은 권능의 역사, 불같은 기도, 생명의 말씀에 있다"고 전한 뒤, 복음의 핵심 '예수가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는 이유'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하였다(사진 1). 세미나 후 당회장 이재록 목사에게 기도받은 권능의 손수건(행 19:11~12)으로 기도받은 마르타 덴뎅 목사(치릉시교회)는 퇴행성 무릎관절염으로 잘 걷지 못했으나 기도받은 후 통증이 사라지고 잘 걸을 수 있게 되었다(사진 3, 4).

5일에는 주일 대예배와 저녁예배에 참석하였으며(사진 5), 특히 약 30명의 목회자들이 인도네시아 전통 바틱 의상을 입고 특송함으로 성도들에게 은혜와 기쁨을 안겨 주었다(사진 9). 아드리안 사로인송 목사(베들레헴교회 담임)는 인사말을 통해 "마치 천국에 와 있는 듯합니다. 성가대와 닛시오케스트라, 찬양과 워십을 통해 성령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너무 좋은 교회와 함께할 수 있어서 매우 기쁘고 감사합니다"라고 전했다(사진 7).

이어 총괄 인솔자 카토우츠 카라우완 목사(베들레헴교회)가 당회장 이재록 목사에게 드리는 감사패를 교역자회 회장 이수진 목사에게 전달했다(사진 8).

이 외에도 무안단물수족관 관람, GCN방송 방문, 다니엘철야 기도회 참석 등의 일정을 가졌다(사진 10).

"오직 예수 그리스도 중심의 교회였습니다!"



폴케 데니 코욘잔 목사
(미국 크라이스트 센터교회)

이번 방문을 통해 만민중앙교회는 성경 상에 기록된 권능의 역사가 나타나는 교회임을 체험했습니다. 교회에서 기적이 일어난다는 것은 큰 축복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만민중앙교회를 통해 기적을 베풀고 계시며, 저희가 이러한 역사를 볼 수 있음에 감사드리고 행복합니다.

저는 이곳에 오기 전, 친구들과 사람들이 만민중앙교회에 대해 좋지 않게 말하고, 인도네시아 교회에서는 만민중앙교회가 사람 중심의 교회라고 평하는 것도 들어보았습니다. 그러나 이곳은 권능이 있는 교회이며, 모든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전합니다. 당회장 이재록 목사님께서는 오직 믿음으로 사시는 분이며, 그분은 오직 기도와 금식으로 사시는 분임을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항상 하나님과 주님께 영광 돌리셨지요.

저는 이곳에서 체험한 간증을 저희 성도들에게 전하여 그들에게 믿음이 되게 하고 싶습니다. 바라기는 많은 사람이 만민중앙교회를 방문하여 성령님이 어떻게 역사하고 계시며 감동을 주시는지를 알기 원합니다. 이곳에 오시면 축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저희들을 환대해 주신 만민중앙교회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19 어린이주일 기념예배 드려

지난 5월 5일 오후 1시 30분, GCN방송과 인터넷을 통해 전 세계로 생방송 되는 가운데 2성전에서 아동주일학교 어린이주일 기념예배를 드렸다. 강사 이미영 목사(3대대 대대교구장)는 '만민의 자랑'(고전 11:1)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을 사랑해 성실히 생활하며 천국 소망으로 달려갈 것"을 당부했다.

희락의 열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 갈라디아서 5:22~23 –

당회장 이재록 목사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보혜사 성령을 선물로 받으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령을 받았다고 해서 누구나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순종하는 만큼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참 자녀의 모습으로 변화될 수 있습니다.

그리하여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가 온전히 맺힌 사람은 모든 분야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발하며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 하나님 보좌가 있는 새 예루살렘 성(계 21, 22장)에 들어갈 자격이 주어집니다. 이번 호에는 성령의 열매 중에서 바른 신앙생활의 측정 기준이 되는 '희락의 열매'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1. 희락의 열매란 무엇인가

'희락'은 문자 그대로 '기쁨과 즐거움'입니다. 그런데 영적인 희락은 단순히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차원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도 좋은 일이 있을 때는 기뻐하는데, 이것은 일시적인 감정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기면 기쁨도 즐거움도 사라지지요. 하지만 성령의 열매인 '희락'이 마음에 맺히면 어떤 상황과 조건 속에서도 항상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영적인 희락은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입니다(살전 5:16~18). 하나님의 자녀는 구원받은 은혜만으로도 항상 기뻐하기에 충분합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 세월이 지나면 첫사랑의 기쁨이 사라지고 구원의 은혜에 대한 감격도 예전과 같지 않습니다. 왜 그런 것일까요? 마음에 육이 있기 때문입니다.

육은 영이신 하나님과 단절된 것들의 속성으로 불법, 불의, 비진리 등 모든 종류의 죄들이 여기에 속합니다. 이러한 육의 속성을 가진 사람은 한때 기쁨이 넘치다가도 어느 순간 그 기쁨이 사라집니다. 또 변질되는 육의 속성이 있기에 원수 마귀 사단이 그 속성을 주관하여 기뻐할 수 없는 상황을 만들어갑니다.

이방인 선교의 초석이 된 사도 바울은 어떤 고난 속에서도 기쁨을 잃지 않았습니다. 그는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권면하기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했습니다(빌 4:4~6)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 기름부음 받은 다윗은 자신을 죽이려 하는 사울 왕을 피해 도망 다녀야 했지만, 오히려 기뻐하며 하나님께 아름다운 찬양시로 자신의 믿음을 고백했습니다(시 23편). 하나님께 대한 뜨거운 사랑과 변함없는 신뢰가 있었기에 어떠한 환경도 그의 중심에서 우러나오는 기쁨을 막지 못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희락의 열매가 맺힌 사람의 모습이지요.

2. 희락의 열매를 맺으려면

1) 육을 벗어버려야 합니다

우리 마음 안에 '시기 질투'라는 육의 속성이 없으면 상대가 축복받고 칭찬받는 것을 볼 때 자신의 일처럼 기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기 질투가 있는 만큼 상대가 잘되는 것을 보면 고통스럽습니다. 상대에 대해 불편한 감정이 생기기도 하고, 그가 잘된 만큼 자신은 낮아지는 것 같아서 기쁨을 잃고 낙심하는 것입니다.

또 '혈기'나 '서운함'이라는 육의 속성이 없는 사람은 무례한 일을 당하거나 해를 입어도 마음이 평안합니다. 자기 안에 육이 있기에 서운하고 속상하며 그로 인해 마음이 무겁고 힘든 것이지요. 그리고 마음 안에 육이 있는 만큼 영적인 믿음을 갖지 못하기에 하나님께 의뢰하지도 못하고 근심, 걱정이 늘어갑니다.

참믿음이 있는 사람은 설령 오늘 당장 먹을 양식이 없다 해도 기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채워 주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마 6:31~33) 아무리 곤란한 상황에 처해도 감사의 기도로 하나님께 맡깁니다. 평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고 그 후에 자신이 쓸 것을 구하지요. 이처럼 마음에서 육을 벗어 나갈수록 영적인 기쁨과 감사가 많이 임하고 범사에 형통할 수 있습니다.

2) 범사에 성령의 소욕을 좇아야 합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이 기뻐하실 때라야 우리도 기쁨과 충만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께 중심으로 예배할 때, 기도하고 찬양할 때, 하나님 말씀을 지켜 행할 때 기쁨이 옵니다. 삶 속에서 순간마다 성령의 소욕을 좇으면 성령이 기뻐하시므로 우리 안에 기쁨을 가득 채워 주시지요(요삼 1:4).

예를 들어, 내 유익을 구하는 마음과 상대의 유익을 구하는 마음이 계속 싸우다가 육을 좇아 자기 유익을 구하면 당장은 좋은 것처럼 보이지만 마음이 답답하고 뭔가 꺼림칙합니다. 반면에 상대의 유익을 구하면 당장은 내가 손해본 것처럼 보여도 성령이 기뻐하시므로 기쁨이 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자기 기준에 맞춰 상대를 판단하던 사람이 마음을 바꿔 선으로 이해해 나가면 그만큼 평안해집니다. 성격이나 의견이 잘 안 맞는 사람에게도 먼저 웃어 주고, 상대를 편안케 해 주려는 마음으로 자신을 죽여 나갈 때(고전 15:31) 평안과 기쁨이 임하지요.

아예 '누군가와 안 맞다, 싫다'는 느낌조차 없으면 평안과 기쁨을 매 순간 누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범사에 성령의 소욕을 좇으면 영적인 기쁨이 더해질 뿐 아니라 마음도 진리로 변화되어 희락의 열매가 맺혀갑니다.

3) 하나님 앞에 기쁨과 감사의 씨를 부지런히 심어야 합니다

농부가 열매를 거두려면 씨를 심고 가꾸는 수고가 필요하듯이 희락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기쁨과 감사의 조건을 찾아서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구원의 기쁨이 있습니다. 또 좋으신 하나님께서 아버지가 되셔서 진리 안에 사는 자녀들을 지키시고 구하는 것마다 응답해 주십니다. 주일 성수와 십일조 생활만 온전히 해도 사고나 재앙을 만나지 않습니다. 범죄하지 않고 계명을 지키며 충성하는 분들이라면 축복의 소식이 항상 넘칩니다.

설령 어떤 어려움에 처한다 해도 문제 해결의 방법이 성경 66권 말씀 안에 있습니다. 자신의 잘못으로 인한 어려움이라면 회개하고 돌이킬 때 하나님의 긍휼을 입고

만민뉴스
등록 서울, 다 01840(1989.7.12)

발행인 이재록
편집인 빈금선
인쇄인 이호영

e-mail news@manminnews.com
홈페이지 www.manminnews.com

만민중앙성결교회
서울특별시 구로구 디지털로26길 29
대표전화 02) 818-7000

만민중앙교회 예배안내

주일 대예배	1부 10:00 AM 2부 11:30 AM
주일 저녁예배	3:00 PM
주일 빛과소금선교회 예배	9:00 PM
주일 빛과소금선교회(요식업) 예배	11:00 PM
금요철야예배	11:00 PM
수요예배	7:00 PM
화요찬양예배 [청년·가나안]	8:00 PM
수요찬양예배 [빛과소금]	9:00 PM
토요찬양예배 [중·고등부]	4:00 PM
다니엘철야 기도회	9:00 PM (매일/ 단, 금요일은 제외)
새벽예배	5:00 AM (매일/ 단, 토요일은 제외)

만민뉴스는 무료입니다

다만 정기구독 시 우송료만은 정기구독자가 부담합니다. 구독신청 후 온라인으로 송금하시면 됩니다.

우 송 료 : 1년분 10,000원 (신문대금은 무료)
구독신청 : manminnews.com 070-8240-5609

우리은행 1002-459-392191 (예금주 박정길)

응답받을 수 있으며, 스스로 돌아보아 책망할 것이 없다면 오히려 더 기뻐하고 감사하면 되지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고 더 큰 축복을 주십니다.

이렇게 감사의 조건을 찾아 기뻐하면 하나님께서는 더 많은 감사의 조건들을 주십니다. 그러면 감사와 기쁨이 더해지고 마침내는 희락의 열매를 온전히 맺습니다. 하지만 마음에 희락의 열매가 맺혀 있다 해도 때로는 슬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진리 안에서 하는 영적인 애통이지요. 하나님을 믿음으로 항상 기뻐하되, 하나님의 나라와 영혼들을 위해 애통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첫 사람 아담을 생령으로 지으시고 그 마음에 희락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생령 아담은 어떤 고통도 체험해 본 적이 없었기에 자신이 누리는 삶이 얼마나 행복한지 깨닫지 못했지요.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금하신 선악과를 먹고 범죄한 후에는 마음에 육이 들어오므로 하나님께서 주신 희락도 잃어버렸습니다.

첫 사람 아담이 잃어버린 희락을 회복하려면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성령을 선물로 받아 육을 벗고 항상 성령의 소욕을 좇으며, 범사에 기쁨과 감사의 마음으로 기쁨의 씨를 심어나가야 합니다.

여기에 매사를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마음과 언제나 아름답고 선한 것을 좇고자 하는 마음이 더해질 때, 희락의 열매가 온전히 맺힐 수 있습니다. 신속히 희락의 열매를 맺어 이 땅에서도 천국을 맛보며 행복이 넘치는 삶을 영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선교 12주년 기념 특집 5 〉〉〉

땅끝까지 이르러 주님의 증인이 되다(1)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사도행전 1:8)

* 2000년 이후 권능 위에 권능, 창조의 권능으로 시작된 폭발적인 역사

만민중앙교회는 1982년 7월, 교회 개척 이후 초대교회를 본받아 날마다 성전에 모여 기도하고 생명의 말씀과 권능의 역사, 구제와 선교로 큰 부흥을 이루며 민족복음화와 세계 선교를 위해 쉼없이 달려왔다.

그 결과, 당회장 이재록 목사는 1998년부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축복의 연단을 오직 믿음과 소망, 사랑으로 통과해 2000년부터는 권능 위에 권능, 곧 창조의 권능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본교회에서는 매년 5월이면 〈와 보라 살아 계신 하나님의 증거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권능〉, 〈근본의 소리를 발하라〉는 주제로 2004년까지 '2주 연속 특별부흥성회'를 개최하였다(위 사진).

2000년 7월부터는 우간다를 시작으로 해외 곳곳에서 이재록 목사 초청 해외 연합대성회가 열려 적게는 수십만, 많게는 수백만의 인파가 운집했다(아래 사진).

창조주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고 성령의 권능으로 수많은 질병이 치료되며, 소경이 눈을 뜨고 귀머거리가 듣고 벙어리가 말하며, 앉은뱅이가 일어나 걸었다. 또한 귀신이 나가고 죽은 자가 살아나며, 우상을 버리고 개종하는 등 살아 계신 하나님의 증거가 나타나 전 세계 무수한 영혼이 구원의 길로 인도받았다.

* 스텔스기처럼 강력한 하나님의 권능으로

하나님께서는 우간다, 일본, 파키스탄, 케냐, 필리핀, 온두라스, 인도에서 일곱 차례의 세계적인 집회를 이루게 하시더니 이후로도 두바이, 러시아, 독일, 페루, 콩고민주공화국, 미국 성회를 이루어야 할 것을 알려 주셨다. 마지막 때 하나님의 비밀한 섭리가 들어있는 곳이기에 복음이 시작된 이스라엘로 복음이 회귀되기 위한 과정으로 허락하신 것이다.

2003년 4월 중동의 관문인 아랍에미리트의 두바이에서 집회가 열렸다. 현지 경찰들이 예정됐던 성회 장소를 폐쇄하고 안전상의 이유로 성회를 금지하는 등 많은 방해가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상상치 못할 지혜와 섭리 가운데 현지 아랍인을 대상으로 복음을 전파할 수 있도록 주관해 주신 것이다. 이후 하나님께서는 "지금까지의 선교지 중 일본과 온두라스를 제외한 곳들을 앞으로 갈 선교지 이집트, 이스라엘과 연결해 보라"고 알려 주셨다. 참으로 기이하게도 최첨단 전투기인 스텔스기의 형상이 드러났다(아래 사진).

*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섭리

스텔스기는 상대의 레이더망에 포착되지 않으면서 적진 깊숙이 잠입해 들어가서 요충지에 치명적인 폭격을 가하는 전투기이다. 이 하나의 형상을 통해 그동안 해외 성회를 인도케 하신 섭리를 명확히 보여 주셨다.

영적으로 철옹성과 같이 단단한 중동의 벽을 허물기 위해 스텔스기처럼 강력한 하나님의 권능으로 전 세계 곳곳에서 연합대성회를 개최하게 하심으로, 오늘날 복음의 오지인 땅끝 이스라엘에 복음이 회귀될 수 있도록 역사하신 것이다.

▲ 약 150개국에 전파된 러시아 연합대성회(2003년 11월)
러시아교회협의회(ACCR) 주최로 상트페테르부르크 올림픽 스타디움(S.K.K)에서 열렸으며, 넵스키 TV와 OTB, TBN 러시아를 통해 생중계 되어 12개의 위성과 공중파 방송 및 케이블 TV로 전 세계 약 150개국에 보도.

▲ CNN을 통해 보도된 우간다 연합대성회
(2000년 7월)

▶ 중동 선교의 문을 열게 된 두바이 집회(2003년 4월)

▲ 난공불락 회교권 선교의 포문을 연 파키스탄 연합대성회(2000년 10월)

▲ 에이즈 등 수많은 질병 치료의 역사가 나타난 케냐 연합대성회(2001년 6월)

▶ 연인원 3백만 명 이상이 모인 인도 연합대성회(2002년 10월)
창조주 하나님의 놀라운 권능으로 수많은 힌두교도가 치료받고 개종, 인도 4개 TV와 인터넷으로 생중계.

▲ 태풍이 물러가는 등 창조의 최상의 권능의 역사가 나타난 필리핀 연합대성회(2001년 9월)

“고막이 녹아버린 왼쪽 귀에서 소리가 들립니다!”

고재현 집사 (61세, 광주만민교회)

저는 어릴 때부터 소리를 잘 듣지 못했습니다.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부터 양쪽 귀에서 고름이 흘러나왔다고 합니다.

성장하면서 오른쪽 귀는 어느 정도 소리가 들리긴 했지만 청력이 떨어졌고, 왼쪽 귀는 소리 자체를 거의 듣지 못하다가 나중에는 아예 듣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스무 살 때, 큰 병원에서 검사를 받았는데 의사는 “왼쪽 귀는 만성 염증으로 인해 고막이 녹아 없다”고 했습니다.

수술하려면 양쪽을 다 해야 하는데 잘못되면 오른쪽마저 듣지 못할 수 있으니 그냥 지내면 좋겠다고 했지요. 40년 전이라 지금처럼 의술이 발달되지 않아 그랬던 것 같습니다. 이후로도 귀에서 고름이 자주 나왔는데 특히 왼쪽이 많이 나왔습니다.

◈

2017년에는 코가 자주 막혀서 이비인후과에 갔다가 귀도 진료를 받았지요. 의사는 왼쪽 귀 고막이 녹아 없어졌다며 이제는 의술이 발달했으니 수술을 하자고 권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1998년부터 만민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면서 당회장 이재록 목사님의 단 한 번의 기도를 통해 세균성 비듬을 치료받았고, 시력도 좋아지는 체험을 했기에 하나님께 치료받아야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그래서 예배 때마다 믿음으로 당회장님의 환자기도를 받았더니 언제부터인가 고름은 나오지 않았지요. 하지만 왼쪽 귀는 여전히 들리지 않았습니다. 직장에서 누가 부르면 잘 듣지 못하고, 업무가 주어져도 잘 알아듣지 못하니 재차 물어보기 일쑤여서 주변에서 늘 저를 배려해야 했지요. 또 전화가 오면 오른쪽 귀에 대고 받았지만, 청력이 정상 이하라 항상 답답했습니다.

◈

그러던 중 올해 3월 말, 호남지방회 주최로 이수진 목사님(예수교연합성결회 부총회장)을 강사로 ‘성령충만기도회’를 개최한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번 기회에 꼭 치료받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싶다는 생각에 제 마음은 아주 뜨거웠지요.

마침내 4월 15일 ‘성령충만기도회’ 시간에 당회장님께 기도받은 권능의 손수건(행 19:11~12)으로 이수진 목사님이 전체 기도를 해 주시는데 성령의 불이 임해 온몸이 뜨거웠습니다. 왼쪽 귀에서는 웅웅거리는 소리가 크게 들리기 시작했지요. 급히 손으로 오른쪽 귀를 막고 들어 보니 왼쪽 귀에서 강사님의 기도 소리가 들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전에는 왼쪽 귀가 전혀 들리지 않았는데, 지금은 오른쪽 귀를 막고도 가까이에 있는 사람의 말소리가 들립니다. 고막이 녹아져 전혀 소리를 듣지 못하던 귀를 치료해 주신 창조주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윌리 미라베노 집사 (70세, 필리핀 까비떼만민교회)

“말초신경염으로 온몸이 굳었으나 정상이 되었습니다!”

2018년 12월 초, 새벽에 갑자기 온몸이 굳어지는 증상이 왔습니다. 고개를 돌릴 수도, 말을 할 수도 없었으며 손가락 하나 까딱할 수 없었지요. 이웃의 도움을 받아 병원으로 실려 갔지만, 안타깝게도 저의 치료를 위해 아무것도 해 줄 수 없다며 퇴원하라고 하였습니다.

의학으로도 어찌할 수 없는 절망적인 상황에서 12월 13일, 담임 조찬형 목사님이 저희 집에 오셔서 당회장 이재록 목사님께 기도받은 권능의 손수건(행 19:11~12)으로 기도해 주셨습니다.

그러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굳어있던 제 몸이 풀려 고개가 돌아가고, 혀가 풀려 말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손가락과 팔도 움직여져 팔을 목선까지 들어올릴 수 있었지요. 하지만 여전히 하반신은 꼼짝 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왜 이런 일이 생긴 것일까?’ 하며 지난 삶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2014년 9월, 교회 등록 후 심각한 관절염을 치료받고 가정도 화목해졌으며 사명을 받아 충성한 적도 있었는데, 언제부터인가 그 열심과 충만함이 사라졌지요. 저는 기도를 쉬다가 나중에는 주일까지 지키지 않고, 불평불만으로 화평을 깼던 일들이 생각나 눈물로 회개하였습니다.

2019년 1월 9일, 한국에서 이미경 목사님이 오셔서 교회를 방문 중이시라는 말을 듣고는 일꾼들의 부축을 받아 휠체어를 타고 수요예배에 참석했습니다. 이때 이미경 목사님이 단에서 권능의 손수건으로 전체 기도를 해 주신 뒤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마비된 다리에 힘이 주어지더니 일어나 조금씩 걷고 움직이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날 저는 사람들의 도움 없이 혼자 걸어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꿈만 같았지요. 이후로 몸은 계속 회복돼 이제는 각종 예배 및 다니엘철야 기도회에도 참석하고 있습니다.

온몸이 굳어져 죽은 몸과 같았던 저를 하나님 권능으로 살려 주신 아버지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말초신경염:** 머리나 척수 등 중추신경에서 뻗어나온 신경에 염증이 생긴 질환으로 주로 근육, 혈관, 피부 끝부분에 있는 신경에 많이 발생한다.

증세는 통증과 마비가 손과 발끝에서부터 시작되어 점차적으로 퍼진다. 이후 신체 전체에 걸쳐 근육의 힘이 점차 약해진다(두산백과 참고).

국내 지교회, 지성전 주소 및 연락처

주일 대예배, 주일 저녁예배, 금요철야예배를 **서울 만민중앙교회**와 NSS-6를 통해 **동시 화상예배**로 드립니다.

- 공주만민교회 충남 공주시 번영1로 34 ☎041)881-7000, 010-3030-7025
- 광주만민교회 광주광역시 서구 하남대로 550번길 39-33 ☎062)513-2455, 010-8888-0727
- 구미만민교회 경북 칠곡군 북삼읍 금오대로6길 30 ☎054)920-4512, 010-3343-1537
- 군산만민교회 전북 군산시 상나운안길 11 ☎063)468-7027, 010-7777-7027
- 남포항만민교회 경북 포항시 남구 새천년대로 409-15 ☎054)281-2468, 010-9773-7017
- 대전만민교회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화로 26 ☎042)625-1205, 633-6283, 010-5434-3927
- 마산만민성결교회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회원동 30-6 ☎055)247-8891~2, 010-4167-6580
- 목포만민교회 전남 목포시 용당로 281, 종원빌딩 ☎061)284-3133, 010-2629-8275
- 무안만민교회 전남 무안군 해제면 해제지도로 167-82 ☎061)452-7443, 010-3153-1723
- 밀양만민교회 경남 밀양시 시청서길 36 ☎055)353-9192, 010-9382-2073
- 부산만민교회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동평로 168 ☎051)805-3898, 010-9140-4194
- 사랑만민교회 충남 계룡시 엄사면 향한리 374 ☎042)841-0091, 010-7195-1099
- 속초만민교회 강원도 속초시 미시령로 3383 ☎033)637-0271, 010-7733-1327
- 순천만민교회 전남 순천시 조례못등길 27 ☎070-4028-2515, 010-2536-2515
- 아산만민교회 충남 아산시 번영로169번길 22 ☎041)546-1537, 010-2672-0244
- 여수만민교회 전남 여수시 둔덕3길 11-2 ☎061)652-8311, 010-2325-1228
- 익산만민교회 전북 익산시 평동로2길 6 ☎063)853-0675, 010-3637-0263
- 전주만민교회 전북 전주시 완산구 한절길 30 ☎063)223-9991, 010-4202-1537
- 제주만민교회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오도9길 55-4 ☎064)745-0675, 010-2468-2251
- 진주문만민교회 경남 사천시 사천읍 선인길 17, 2동 3호 ☎055)852-5815, 010-9196-3927
- 천안만민교회 충남 천안시 서북구 성정1길 5 ☎041)577-7077, 010-3447-7077
- 청주만민교회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옥산면 가락길 71 ☎043)293-7077, 010-8291-7173
- 충주만민교회 충북 충주시 용산동 1210 ☎043)845-0617, 010-2447-9217
- 통영만민교회 경남 통영시 광도면 남해안대로 861 ☎055)648-9107, 010-7224-8891
- 해운대만민교회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송정광어골로 76 ☎010-8020-7333
- 강동지성전 서울시 강동구 양재대로 1508, 호유빌딩 지하 ☎02)489-3766, 010-2201-0542
- 검단지성전 인천시 서구 완정로 162 ☎010-3232-7504
- 구리지성전 경기도 구리시 안골로 46, 광명빌딩 5층 ☎031)552-7397, 010-8163-1537
- 부평지성전 인천광역시 부평구 주부토로 112, 5층 ☎010-7118-5730
- 북부지성전 서울시 강북구 도봉로 172 ☎02)995-9951, 010-8947-7017
- 분당지성전 성남시 분당구 야탑로 95 ☎ 010-2208-5719
- 수원지성전 경기도 수원시 팔달문로 150번길 26 2, 3층 ☎031)202-8480, 010-4820-1700
- 안산지성전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광덕산2로 22, 은성빌딩 3층 ☎031)485-9143, 010-3430-3312
- 의정부지성전 경기도 의정부시 평화로 483, 2층 ☎031)840-2906, 010-4710-9649
- 이천지성전 경기도 이천시 이섭대천로 1177번길 12 ☎031)635-9103, 010-4115-1127
- 인천지성전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남로 120 백세빌딩 10층 ☎032)863-9857, 010-8927-2073
- 일산지성전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강촌로 18, 아원B/D ☎031)905-2419,010-2352-8336